

학령인구 줄어도 서울대 정시경쟁률 '쑥'... 눈치작전 '극심'

3.82대 1... 전년보다 0.42%p ↑
마감 몇시간 앞두고 50% 몰려
자연계 최상위권 전년보다 높고
재수 기대심리 소신지원 등 영향

전국적으로 정시 전형 경쟁률 하락 기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대가 예상을 뒤집으며 '역주행'하고 있다. 서울대 2021학년도 대입 정시 경쟁률은 3.82대 1로 나타나 전년도보다 상승했다.

10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는 9일 오후 6시 2021학년도 정시모집 마감 일반전형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798명 선발에 3049명이 지원했다.

경쟁률은 3.82대 1이다. 전년도 경쟁률인 3.40대 1보다 0.42%p 높다. 정시 선발 인원이 전년도보다 61명 감소한 데 반해 지원자는 127명 증가하면서 경쟁률이 높아졌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서울대는 모집 강제

앞서 이번 정시는 전국적으로 경쟁률 하락이 예상됐다. 학령인구 감소로 수시 전형에서 선발하지 못해 정시로 이월해 뽑는 인원이 전국적으로 약 40% 늘어나면서다.

(2020학년도·2021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마감 경쟁률 비교)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정원	지원자	경쟁률	정원	지원자	경쟁률
859명	2,922명	3.4대 1	798명	3,049명	3.82대 1

/서울대 홈페이지



그러나 국내 최상위권 대학인 'SKY'는 이런 예상을 뒤엎었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는 수시에서도 학생 모집에 선전하며 수시 이월 인원이 전년도보다 줄어들었다. 서울대는 2021학년도 수시모집에서 47명의 이월 인원이 발생해 이번 정시에서 이를 더해 총 798명을 선발한다. 지난해 서울대 수시 이월 인원은 175명으로 올해는 3분의 1

이상 줄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수시 합격자 이탈 감소 등 서울대 경쟁률이 오른 이유는 2021 수능 자연계 최상위권 증가와 재수 기대심리로 인한 소신지원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애초 수시모집만 선발할 계획이었지만 미충원이 발생해 정시로 이월해

정시모집 일반전형으로 추가 선발하게 된 모집단위가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동양화과(13:1), 에너지자원공학과(9:1), 교육학과(23:1)로 교육학과는 전체 학과에서도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다만 서울대 정시 경쟁률 상승은 일부 학과에서 지원자가 몰리면서 전체 경쟁률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전반적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지원율을 보인 가운데 전기정보공학부, 소비자학 전공 등 특정 모집단위의 지원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지원율 상승의 주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막판 지원 '눈치 싸움' 치열

수험생 '눈치 싸움'은 올해도 치열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원서접수 마감 몇 시간 전까지 낮은 경쟁률을 보이다가 원서접수 마감 시간을 앞두고 50%가 넘는 지원자가 대거 몰렸다.

서울대가 9일 15시 발표한 경쟁률 현황에서 ▲건설환경공학부(0.93:1) ▲조선해양공학과(0.71:1) ▲생물교육과(0.78:1) ▲지구과학교육과(0.77:1) ▲소비자자동차학부-소비자학전공(0.90:1) 등 5개 모집단위가 정원을 채

우지 못했다. 그러나 6시 마감 결과 각각 ▲3.87대 1 ▲5.50대 1 ▲4대 1 ▲3.23대 1 ▲7.80대 1로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년도 1.87대 1의 낮은 지원율을 보인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의 경우 2.98대 1로 경쟁률이 많이 증가하는 등 마지막까지 눈치작전이 치열했다.

다만 의학 계열에서는 눈치작전을 펼친 수험생보다 소신 지원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마감 직전 경쟁률과 최종 사이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의예과(3.63:1)와 수의예과(5:1)는 소신 지원 양상을 보여 마감직전 경쟁률에서도 각각 지난해 경쟁률 2.77대 1, 4.38대 1을 넘어서거나 비슷한 현상을 보였다.

이만기 소장은 "이번 2021학년도 수능시험에서 자연계 최상위권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데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대 지원자가 주로 선택하는 생명과학과 화학의 변형표준점수(생명II와 화학II 최고점 68.12, 물리II 64.3, 지구II 68.12)가 그리 불리하지 않은 것도 이유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한국외대 대학생들, 中企 해외진출 돕는다

무협과 콘텐츠 제작 산학협력
60개 기업 제품 홍보영상 지원

한국외대 융합인재대학추진위원회는 지난 7일 한국무역협회와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콘텐츠 제작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외대 융합인재대학은 영상 촬영 및 편집이 가능한 대학생들을 추천해 '대학생 콘텐츠 크루'를 구성하고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위한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게 된다.

한국무역협회는 기업 간(B2B) 온라인 거래알선 플랫폼 '트레이드코리아'



한국외대 융합인재대학-한국무역협회 산학협력 온라인 협약식. /한국외대

와 해외 직판 플랫폼 '케이몰24' 입점 기업 60개를 대상으로 제품 홍보영상 등

과 같은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이현진 기자

건국대, 고교생 위한
'KU꿈잡이노트' 개발

건국대입학전형센터가 학생 적성 및 진로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KU꿈잡이노트(사진)'를 제작해 이달 초부터 온라인으로 배포중이다.



10일 건국대에 따르면 'KU 꿈잡이노트'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의 대입 준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개발됐다. 학사 구조가 개편된 단과대학의 경우 학과 소개를 수정해 업데이트했다. 'KU 꿈잡이노트'는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진로개발을 고민하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 누구나 제한 없이 활용가능하다. /이현진 기자

세종대, 모바일 앱 설계 공모전 진행

'우리동네 공유주방 배달앱' 대상

세종대 LINC+ 사업단은 최근 학내 군자관 디자인홀에서 SFM(스마트푸드 서비스 매니지먼트) 트랙 '2020 모바일 앱 설계 공모전'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SFM트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외식산업의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체가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융복합 교육과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ICT 기술을 활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총 13명이 참가했으며 이중 최종 10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공모전은 참가자가 직접 개발한 앱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사는 황진수 외식경영학과 교수와 문혜정 교



세종대 LINC+ 사업단장 이슬기 교수(왼쪽)와 대상을 받은 조현식 학생. /세종대

수가 참여했다.

대상은 '우리동네 공유주방 배달 앱'을 개발한 조현식(외식경영학과·14학번) 학생이 차지했다. '우리동네 공유주방 배달 앱'은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앱 설계 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현진 기자

'아이디어 토크'... 상명대, SM 경진대회

SW인재 발굴... '119신고 도움' 대상

상명대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인공지능(AI)과 게임 등 소프트웨어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SM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회는 출품작과 관련된 의견을 공유하는 앱(최고의 상명)을 통해 진행됐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SW 아이디어와 그 성과를 선보인 'AI 부문'에서는 사회 다양한 분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크 튀는 아이디어가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대상은 컴퓨터과학과 15학번 김주

환, 송재우로 구성된 '119NER' 팀이 차지했다. 119 신고접수 과정에서 신고 정확도를 높여 빠른 출동 시간 확보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다.

학생들은 '언어 모델 기반 개체명 인식 기술을 이용한 119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안했다. 신고자 음성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이 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요약·정리돼 소방대원에게 전달되는 서비스다. 두 학생은 지난해 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 KT가 주관하는 '포스트 코로나 AI 챌린지' 공모전에서 'KOMO(킵온 마스크온) 서비스'를 개발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현진 기자

성신여대 재학생들, '푸드덕' 특허 출원

성신여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창창한 미래팀이 개발한 '푸드덕'이 '유통기한 임박 식품 판매 방법'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로 특허(출원번호 10-2020-0032246)를 출원했다.

10일 성신여대에 따르면 이번에 특허 출원한 '푸드덕'은 편의점 유통기한 임박 식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소비자에게는 '가성비'를 제공

하고 공급자에게는 폐기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친환경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1석 3조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또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며 유통기한이 지나도 섭취할 수 있다는 정보를 인식시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도 담았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환경 보호에 일조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현진 기자

경희사이버대 백승권 前청와대 행정관 '글쓰기 특강'

경희사이버대 교양학부가 오는 11일 '내 삶을 펼치는 글쓰기'를 주제로 온라인 실시간 시스템 줌(Zoom)을 통해 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특강은 '강원국, 백승권의 글쓰기 바이블' 저자인 백승권 교수가 맡았다. 백 교수는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

관을 역임했다.

특강은 경희사이버대 재학생이 일반인도 참여 가능하다.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사전 참여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강원국, 백승권의 글쓰기 바이블' 서적도 지급한다.

/이현진 기자